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들어감 (룻기 1:1-5)

[요절]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였더니』 (룻기 1:1)

[읽을거리]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사사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만 남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여인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 남자가 모두 죽고 여인들만 남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4)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육신의 풍성함을 따라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이 육신의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슬픔과 좌절뿐입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떠난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그들의 육신이 살기 위해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 시기가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믿음을 버린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이 가져다 준 결과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인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이 주는 힘겨운 삶에 대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결심 (룻기 1:6-18)

[요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 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6,17)

[읽을거리]

나오미는 분명히 훌륭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며느리들만 남게 되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 사실을 말하며, 각자 그들의 친정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8,9) 이에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읍니다.(14) 이별을 아쉬워 하는 며느리들의 표정에서 나오미는 존경 받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두 명의 며느리들이 택한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슬픔과 아쉬움을 간직한 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만 릿은 결국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에 머물겠다고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를 향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릿은 이미 결혼한 여자로서 자신의 고향에서도 행복한 삶은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녀의 유일한 기대와 희망은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로서 그는 이미 한 가족으로서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맺게 된다면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보상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주님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끄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룻기 1:19-22)

[요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하셨음이라』 (20)

[읽을거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온 도시는 그녀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흥분할수록 그녀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기쁘고 희락이 넘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전혀 그러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요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남편과 아들마저 잃은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처지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21) 그 까닭에 그녀는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보리(말씀) 수확을 시작할 때라는 사실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터전을 다 잃고 보리 이삭을 줍는 신세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의욕을 모두 잃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가장 소망 있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욕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육신적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7)

이삭줍기 (룻기 2:1-3)

[요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2)

[읽을거리]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들어 온 그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여전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끼니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젊은 여인이었던 룻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일을 나갈 것을 허락 받습니다. 그가 일을 나가기 위해 허락을 받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결정권을 시어머니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일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 묻고 해답을 구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천한 일일지라도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세상에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비천한 일일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나 먹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함이라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을지니라(데살로니가후서 3:10-12)

룻과 보아스의 만남(룻기 2:4-17)

[요절]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12)

[읽을거리]

룻이 이삭을 줍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일을 계속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으며(7), 결국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함으로서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고, 그녀를 위하여 종들로 하여금 그녀에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9)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하여 룻은 몸돌 바를 몰랐고, 오히려 이방 여자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묻자(10), 보아스는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고향을 떠나 온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줍니다.

보아스는 은혜에 감사하는 룻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것을 권하고 그녀는 충분히 먹고 남길 만큼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면서 보아스는 종들에게 그녀를 위하여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줍게하였고, 룻이 하루동안 주운 보리의 양이 일 에바나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자였습니다. 이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보아스의 성품과 매사에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룻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많은 재물과 능력을 지녔다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종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나누어 줄 줄 아는 보아스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 즉 재물을 맡은 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도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부자들의 행동을 경멸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종의 처지가 되어서 이삭을 줍는 신세가 되었지만 밭에서 일을 하고, 식사를 한 끼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에도 감격해 할 줄 알았던 룯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언제나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룯기 2:18-23)

[요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22)

[읽을거리]

룯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과 주운 이삭들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자 그녀는 이것을 어디서 주웠고, 어디서 일했는지를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한 룯에게 나오미는 그가 가까운 친족임을 말하고 그의 밭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후로 룯은 보리와 밀 수확을 끝낼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희년이 되면 자기들의 땅을 다시 돌려 받게 되어 있는데 그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도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룯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잃었던 기업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한 끊겼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거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맏아들로 하여금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신명기 25:5,6)

나오미는 며느리 룯에게 당부하기를 그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일은 나오미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 받고, 룯도 역시 행복해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 온 두 여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보여주셨고,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룯에게 보아스가 유일한 희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룯기 3:1-5)

[요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하니(4)

[읽을거리]

룯으로부터 보아스의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가 기업과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임을 알고 룯을 재혼시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비록 나오미 자신은 룯의 재혼으로 인하여 다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녀를 결혼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룯의 행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룯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룯으로 하여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알리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3,4) 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할 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에게 먼저 와서 그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룯의 재혼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이 없이 삶을 지속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룯에게 행할 일을 말하면서 마지막 말로 "네가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4)고 말합니다. 계획은 나오미가 세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보아스의 뜻에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7:9-11) 나오미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만은 보아스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에 대한 룯의 자세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없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5)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그는 은혜의 동산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오 하신 분이 아니었으니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고린도후서 1:19,20)

명한 대로 다 하니라(룯기 3:6,7)

[요절]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하니라(6)

[읽을거리]

룯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알리고는 실제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때에 나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에 누웠더라"(7)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는 결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몸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룯이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나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룯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에 모든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는 룯이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친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 세대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

룯이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의 교훈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그의 인생은 증으로서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소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의 교훈쯤으로 생각하고 삶을 지속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세상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그것을 이행하리이다(시편 119:105,106)

현숙한 여인(룻기 3:8-13)

[요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임무를 내게 수행하려 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임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임무를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13)

[읽을거리]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보아스의 밭치에 눕자 그가 일어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룻은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까운 친족임을 밝힙니다. 이 행동은 룻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청혼에 대하여 보아스는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녀와 결혼하여 친족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므로 그들이 친족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친절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는 것입니다. 즉 룻은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때에 룻의 자세는 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자신을 지키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육신적인데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에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이 교회를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며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끌만한 것은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앎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은 처음에 이방여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은 그녀의 효성과 부지런함과 친절에 감동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현숙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룯의 처지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꺾박이 대상일 수 있겠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역시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사도행전 2:47)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룯기 3:14-18)

[요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날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18)

[읽을거리]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보아스의 밭치에 누웠던 룯은 그로부터 친족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들은 후에 새벽까지 그의 밭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서 그의 곁을 떠나려 합니다. 이에 대해 보아스는 그녀의 너울에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이어 주고 룯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에게 간 룯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다 고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지 말라고 하면서 보리를 준 것까지 말하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룯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보아스가 룯과의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 일을 끝마치지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룯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룯이 만일 현대인이라면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소문이 나는 것을 원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혼하는데 더욱 유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룯의 시대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룯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비밀스럽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주님과 은밀한 시간들이 날날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주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보아스가 약속으로 건네 준 보리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그녀를 빈손으로 보냈다면 아마도 룯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져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까닭에 보아스는 그녀들의 행동에 대한 답변의 의미로 보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보리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문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룯이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보아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 룯이 가져 온 보리를 보는 순간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주님과과의 혼인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룯기 4:1-8)

[요절]

이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나니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니라(6)

[읽을거리]

보아스는 룯과 결혼을 하고 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철저히 절차를 따라 진행을 시킵니다. 마침 그보다 더욱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자 도시의 장로 10 명을 청해 놓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살 것인지를 여부를 묻습니다. 그는 바로 사겠다고 말하지만 룯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죽은 자의 상속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한 자는 자기의 신을 벗고 포기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행위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 기업을 무를 권한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보아스는 룯과 나오미의 기업을 얻고 룯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업을 포기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신명기 25:7-10) 그러나 이방여자이자 가난한 룯의 기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선 가장 가까운 친족은 상속에 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빈번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대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명예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들이 용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있으며, 온 백성을 치리 해야 하는 이들이 각종 부조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쫓기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 올라오면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유리한 것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명백합니다. 보아스가 이미 가난한 이방여인 롯을 위해 희생의 자세를 가졌듯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자신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의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된 결혼 (4:9-12)

[요절]

주께서 이 젊은 여자 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12)

[읽을거리]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욱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기업을 무를 수 있도록 양보를 받은 후 온 백성들을 향해 결혼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온 백성과 장로들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같이, 또한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가정이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라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축복을 받은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태복음 1:5,6)

이러한 그들의 축복은 그들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지극한 효성과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성품과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위대한 가정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의 가정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을 때 그 가정은 그들의 바램 대로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삭막한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재 기도와 감사를 드리되(디모데전서 2:1)

바울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것은 비단 다른 이들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에서 탄생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의 복을 비는 기도들은 우리 자신들을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가정, 교회, 이웃, 국가 등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낳은 자녀(룻기 4:13-17)

[요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 날 네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14)

[읽을거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나오미를 향해 축복을 했고, 이 아이는 온 백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룻이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이라고 칭송했으며, 나오미는 그의 보모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이웃 여인들에 의해 이름이 지어졌는데 "오벳"이라고 지어졌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나오미의 슬픔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 결혼을 하여 며느리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손도 갖지 못했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손자 하나만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슬픔과 아픔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하였으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들은 자식을 갖게 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그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의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아이를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디모데전서 1:2)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라(빌레몬서 1:10)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진정한 아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듯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깊은 좌절과 영적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죽어져 가는 혼을 구하기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문의 소개 (룻기 4:18-22)

[요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21,22)

[읽을거리]

룻기를 마무리 하면서 베레스의 가문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우리의 귀에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는 유다와 다말과의 불륜에 의해 태어난 자입니다.(창 38:12-29) 베레스로부터 가문을 소개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문의 역사가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은 여리고에 살던 창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마 1:5)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창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문의 역사를 다윗까지 소개한 것은 그가 왕이었다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는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가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말과 같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여인과 라합과 같은 창녀, 그리고 룻과 같은 이방여인, 그리고 남편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간통했던 밧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의 역사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의 역사를 안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베소서 2:1)

우리의 구원이 결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과 더불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보다 풍성한 삶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